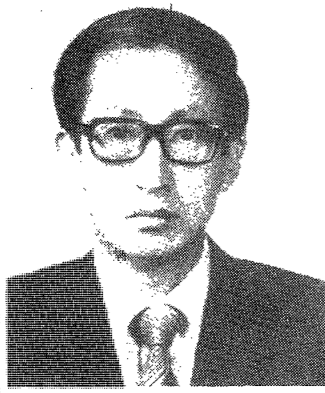






# 저작권법

# 작가 저작권 보호가 1차적 임무



황 적 인

(서울대법대교수·한국지적소유권 학회장)

## 1. 저작권법 개정의 경위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이 구법(舊法)은 전술 75조로 비교적 짧은 법전이었다. 이 구법의 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1984년부터였으며 그 개정동기는 구법의 규정이 너무 낡아서, 저작물의 종류와 양도 많고, 그 중요성도 커졌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저작권법에 비하여 손색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의 직접적 동기는 미국의 요구였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흑자를 누렸던 반면에(1984년 1년동안에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45억달러, 대미수출은 29% 증가) 미국은 이윤과 쌍둥이 적자로서 만성적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렸다. (1985년 당시 무역적자가 1,500억달러였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지적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우리나라에게 베른조약 또는 세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그 가입의 전제로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 7월18일 한미간의 합의문에 의거하여 신저작권법시행후 90일(1987.10.1)이전까지 세계저작권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의되었다.

년으로 늘리고 구법 63조의 부정출판물의 부수적규정, 즉 '저작자의 점인없이 저작물을 출판할 때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3천부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삭제하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1984년 5월 9일 저작자들의 자구노력으로 창설된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이다. 당시 65명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되고 이로 인하여 출판사에 유리하도록 개정하려는 노력은 저지되고

다로 저작권위반사라는 너무나 많다. 저작권법 25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 34조에 의하면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의 논문이나 책을 표절하는 일은 너무나 많다. 남의 책은 존중되어야 하고 절대로 표절해서는 안된다는 저작권중심의 풍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10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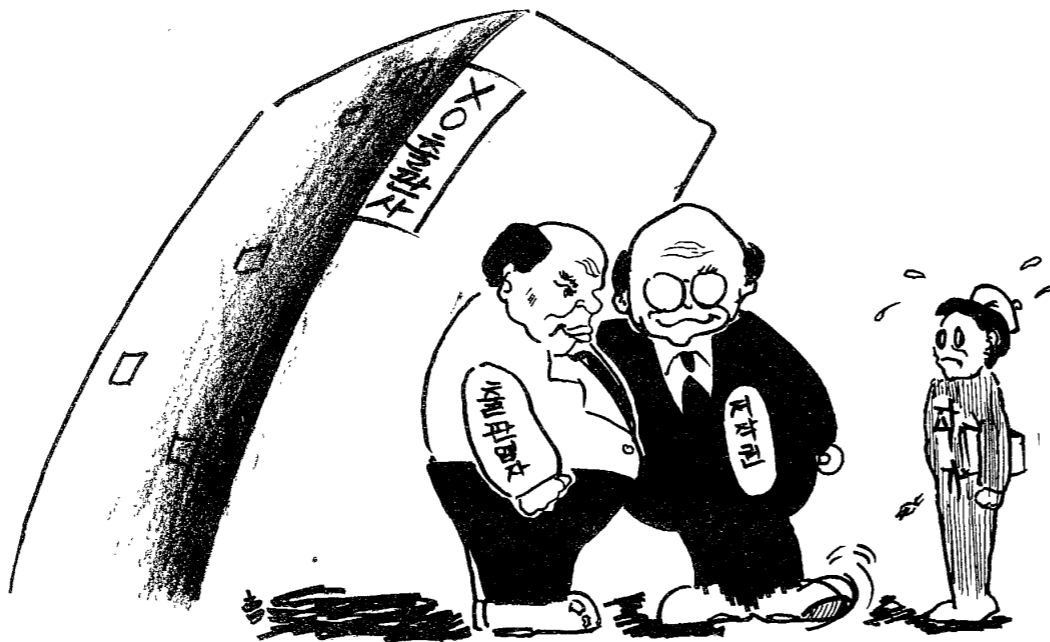
## 3.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방법을 기구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 기구는 저작권법 81조에 의거하여 87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에 조정부가 설치되어 있다. 원래 심소 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조정부가 조정인(즉 조정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면 출판사가 날인하지 않더라도 저작자는 법원에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서로서 증거자료로서라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조정안조차도 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발부해 주지 않고 있다. 발부해 주는 것은 조정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서(調書)의 사본인데, 이것으로는 조정위원의 의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사업자에게서 용하지 않을 경우 공표까지 하므로 조정이 75%나 된다.

다. 길가에서 파는 카세트, 어학공부용 카세트를 무단복제해서 파는 일은 너무나 많고, 외국원서를 무단복제해서 서점에 내놓고 팔거나 외판하는 일도 허다하다. 1991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문예학술저작권위원회가 다른 침해사건이 49건이었고, 이중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이 12건, 그중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 5건이다. 침해사건 49건중에 대부분은 타인의 저작물(단편 또는 수필)을 모아서 무안으로 책을 만들어서 출판한 경우가 많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침해사태가 잦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4조 1항 9호에 저작물의 하나로 문제가 있고 이것의 보호를 규정한 특별법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인데, 프로그램의 제작자나, 또는 인정하더라도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만이다. 저작권위원회가 합의에 용하지 않으면 심의조정위가 위반사실을 공표(公表)한 다음에 고소를 하면 다



# 저작권심의조정위 조직·권한 강화해야 개정 직접동기...국내환경보다 미국의 요구 영향 커 컴퓨터프로그램 불법 복제 10건 형사 고소

개정저작권법의 저작권보호는 다양히 구법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7년 7월1일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1988년 7월 사단법인이 되면서 명칭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 변경되었다.

## 2. 저작권법 위반사례 극성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개정 저작권법은 1986년 12월31일 공포되어 다음해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중의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86년 12월31일 공포되어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면 저작권법 시행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저작권법이라는 일은 저작자와 저작물의 이용자(출판사·방송국·신문사)의 권리·의무를 정함으로써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사용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마

의조정위원의 총수는 현재 15명인데, 조정부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자와 저작물이용자, 출판사간에 다툼이 생기면 여기에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 3명이 선정되어 양당사자를 불러 상정을 듣고 조정을 해 주는 바, 만일 양당사자가 합의가 되어 날인하면 그 합의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일방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서 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조정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원래 저작권침해사건은 형사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저작권위반자가 합의에 이를만큼 강제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위반자가 침해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인정하더라도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만이다. 저작권위원회가 합의에 용하지 않으면 심의조정위가 위반사실을 공표(公表)한 다음에 고소를 하면 다

것이다.

### (2) 민간 저작권단체

현재 민간 저작권보호단체에는 3개가 있다.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는 작곡가·작사자들의 저작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방송저작권위원회는 주로 TV국립 및 일부 영화사나리오를 쓰는 저작자의 단체이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위원회는 음악과 TV국립분야를 제외한 저작자들. 따라서 도서,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사진, 연극, 영상, 만화, 건축분야의 저작자들의 단체이다. 이 3단체는 문화부로부터 저작권심조정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허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 단체에서 회원들을 위하여 법률구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협회로 신고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협회에서 소송을 하는 사업체에 최고강을 내고, 침해자가 협회비를 배상요구에 응하면 배상을 받거나 회원에게 주고, 만일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 학술정보

역사문제 연구소 제19기 한국사교실

### 친일파·민족반역자 열전

#### "민족문제 그 발생원인 규명"

한국 근현대사에서 친일파의 행적과 그 영향은 오늘날 어떠한 민족문제를 생산했는가? 남한사회는 근대 사회·민족국기를 형성,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민족국가·현대사회를 건설해야 할 시기에 민족분열과 극도분할을 조래한 분단체계를 맞이했다.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제국주의 또는 강대국이 한국 근현대사를 파멸적으로 몰고간 외적 기본인자라면, 친일파는 그것의 민족내적 추동인자였다.

더욱이 친일·친미파는 그 개인적 행적의 문제가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희석시키고 극우반공독재의 영속을 추구하는 한편, 외세의존적 틈을 형성한다. 즉 오늘날 민족문제로서 대두되는 분단, 극우반공이데올로기, 사회발전의 주체성 상실, 민족문제를 배제한 근대화 지상주의적 경제발전 모델 등을 생산하는데 친일파의 '업적'은 대단했던 것이다.

이처럼 친일파 형성의 역사적 배경, 구조적 원인과 오늘날의 문제를 살펴보는 강연, 제19기 한국사교실 '친일파·민족반역자 열전'이 역사문제연구소 주최로 지난23일부터 오는 6월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서울역역 대우재단빌딩(18층 강연실)에서 개최된다.

19기 한국사교실은 23일,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서중석·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에 이어 삼각일적 맥락(이광수·손병준(이이화) △친일일을 애국으로 착각한 지식인들-이광수·최남선(임현영·문화예술대학)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 기업인들-박종식·문명기(박현채·조선대학교) △이데올로기 위해 밧을 잡은 화가들-김기창·김은호(윤필모·미술평론가) △이 땅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몰아낸 여성 명사들-김활란·모윤숙(강정숙·영남대교수) △8·15이후의 친일파집단-이승만정권을 떠받친 친일 경찰·관료·지식인들(방기중·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의 강연으로 진행되며 1회 회비는 5천원이다.

한편 이번 한국사교실은 최근 '일본의 재무장,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심상치 않은 기류와 사회일각에서 친일론이 재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친일파·민족반역자가 뿌려놓은 우리사회의 민족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부)

것이다. 회원의 신고가 없더라도 협회가 자체적으로 서점에 나가 저작권침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서적을 수거하여 발행자에게 최고강을 내고 회원의 저작권선탈을 받아 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하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저작권위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회원에 분배한 액수로 89년에 7백44만원, 90년에 3백85만원, 91년에는 9천5백만원에 이른다. 이들 민간저작권단체의 약점은 저작권보호의 의욕은 있으나 예산규모가 작고 부유권 권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활동의 한계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요망된다.

### (3) 형사 및 민사소송

저작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상 두기구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저작자는 저작권법 98조 이하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소를 하고 고소가 기각되면 항고제항을 할 수 있으며, 재항고도 기각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訴願)을 낼 수 있다. 실제로 고소되어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1991년 1년간 12건이 기소되어 5건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형사소송과 아울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저작권법제정에 수반되어 있는 민사사건은 36건이다. 형사 및 민사소송의 약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법원, 또는 검찰에서는 사안이 원해 많으므로 저작권사건은 법원·검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뿐 아니라 사건내용이 지능적이어서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철저여부를 가려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판공지가 저작권법에는 비교적 생소하다. 또한 침해자측에서 철회로 얻은 이익은 큰 반면에 피해자인 저작자들은 영세하므로 소송대리인에 위 사건을 위임할 능력이 없는데 가해자측은 사업자이므로 재력도, 법률지식도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즉 유능한 변호사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저작권침해여부를 가려주는 감정기관이 부족하다. 이것은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침해의 감정에 있어서 적절한 감정기관을 찾아 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저작자가 민사·형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배상을 충분히 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시행후 하급심에서는 패소사건에 대법원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원 당국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저작자측에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수호하려는 강령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저작권법제정에 수반되어 있는 민사사건은 36건이다. 형사 및 민사소송의 약점은 다음 과 같다.

## 제10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과학아이디어 작품 현상공모

- 작품내용**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농수산, 공업, 해양 등에 대한 과학작품과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작품.
- 작품지침**  
(1) 기초과학분야의 작품: 자연현상의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창의성 있고 학술가치가 있는 작품.  
(2) 산업기술분야의 작품: 산업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이나 자원과 에너지 개발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작품.  
(3) 아이디어분야의 작품: 창의성 발휘로서 실생활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작품.  
(4) 기타 분야의 작품: 위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
- 출품할 수 없는 작품**  
(1) 과거에 출품되었거나 남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작품.  
(2) 부패하거나 기타 폭발할 위험이 있는 작품.
- 작품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출품신청할 때  
접수: 1992. 5. 4(월)~5. 22(금)  
○출품신청서(서식 1)  
(2) 작품을 제출할 때  
접수: 1992. 5. 15(금)~5. 22(금)

주최: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후원: 산업기술연구소 협찬: 삼성전자

## 92학년도 뉴욕주립대 파견유학생 선발 계획

-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① 불교학, 선학, 철학, 영문학 전공 박사과정 지원자 중 1명  
②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전공 박사과정 지원자 중 1명
- 지원자격**  
① 본교를 졸업하고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자  
② 학부전공, 석사과정 전공, 박사과정 희망전공이 일치하는 자  
③ 학부 및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성적이 평점평균 3.7 이상인자  
④ TOEFL 600점 이상, GRE VERTICAL SECTION 과 QUANTITATIVE SECTION의 합계가 1200점 내외인 자  
⑤ 병역상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⑥ 이상의 모든 조건을 구비한 자
- 제출서류**  
① 지원서(소정양식) 1부  
② 학부 및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 기획조정실

## 수계법회안내

정각원에서는 불기 2536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재단 이사장 吳緣國 대종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수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계(戒)란 삶의 지침이요, 올바른 생활의 근반바탕이며, 가시실현을 위한 정도이자 불교의 이상세계인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통국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이번 수계법회에 동참하시어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시고 자신의 귀의처와 삶의 지표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전 계사: 吳緣國 대종사  
일 시: 불기 2536년 5월 7일(목) 오후 2시  
장 소: 정각원 대법당  
대 상: 전 동국인  
수계접수: 4월 20일~5월 1일  
접수장소: 정각원 사무실(구내: 3016, 직통: 268-2314)

## 동국대학교정각원





# 현실과 괴리된 채 호기심만 유발

## 이 시대의 우리문학

### 두번째 작품성과 무관한 대중소설

1

대중소설이라는 말은 상업주의 소설이라는 용어의 구분없이 거의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인다. 하지만 대중소설이란 그냥 상업주의와 동의어로 쓰여서는 곤란할만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길게 말하면 거름은 없었거나 이차적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부터가 대중적 독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소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부여하는 평가의 뜻이, 예컨대 '문학의 대중화'라고 말할 때는 전혀 다른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같은 섞어 쓸 수 밖에 없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업주의 소설에 대해서 흔히 전문적 문인집단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현실주의적 진영 뿐 아니라 소위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집단에서도 이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상업주의 소설은 산업화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라, 또 절대반란에서 벗어난 대중이 늘어남에 따라 분명히 우리 문학 생산-유통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엄연히 존재하는 문학적 현상에 대해 침묵한다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론자들에게 일종의 일부 방기라는 혐의를 두게 하는 일이지가, 더군다나 현실의 변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진보주의 문학집단에서마저 상업소설의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정당한 경고를 소홀히 하는 일은 더욱 심각한 잘못이 아닐 수 없다. 대중적 문화의 막강한 위력이란 무슨 텔레비전 연속극에 출연한다는 넘 베풀어 텔레비트가 국회의원이 되는 현실만 보아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문학의 국면에서도 이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박범신, 고원정, 이문열의 소설이, 아니 신달자나 유안진이나 하는 작가의 수필집들이 수십만 권씩 팔리는 데 비해서 소위 본격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작가들의 작품집들은 과연 얼마나 팔리고 있었는가. 상업주의 소설들은 어째서 이토록 널리 읽히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회적 영향력이란 어떤 것인지, 또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일, 또는 그들이 독자를 끌어들이는 비결에서 진보적 작가들은 배울 바가 전혀 없는지를 살피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이 중요

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 훨씬 더 심각하고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대중소설의 경우이다. 72년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 최초의 상업주의소설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영화판과 인파를 끌어 모은 이후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소위 호스텔스 소설들이다. 유원중, 김홍신, 김영연, 박범신, 고원정, 이문열 등의 이름 아래 쓰인 작품들은 대체로 이런 부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무협소설류의 작가들과는 건구구조차 힘들만큼 본격적인 문학수업을 닦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꽤 그럴싸한 포장을 지니고 있다. 또 그들의 작품들을 모두

### 글 쓰는 차례

1. 도시의 새로운 정서
2. 대중소설의 대중성
3. 시의 사회적 진실
4. 역사의 소설화
5. 총평

기의 책을 고르기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들의 소설은 '합계 시는 사회'나 '유연 테크니' 하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미지광고를 응용하여 꾸민 고급진전술과 닮아 있는 것이다. 개별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강화되기 시작하자 이런 식의 고급진전을 등장시켜 사람들을 혼란시키듯이 대중 소설 역시 70년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포장을 지니고 나타난다. 최인호, 조선작들이 허황된 호스텔스의 사방이아기를 들고나와 옷 벗기, 도시적 감성으로 무장된 문제들을 무기로 대중을 사로잡았다면, 박범신, 이문열, 고원정들은 일단 당대 독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이야기거리로 삼는다. 박범신은 도시화와 농촌파괴, 빈부갈등 문제라든지 심지어 광주항쟁이나 노동운동까지도 소재로 삼고 이데올로기(모든 일에 대한 혐오, 특히 민중세력의 이념에 대한 공격)를 주된 매뉴로 선 보이고 있고, 고원정은 현대 정치의 현상이라는 인기몰이를 새로 개발해냈다. 한결같이 독

자의 책을 고르기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들의 소설은 '합계 시는 사회'나 '유연 테크니' 하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미지광고를 응용하여 꾸민 고급진전술과 닮아 있는 것이다. 개별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강화되기 시작하자 이런 식의 고급진전을 등장시켜 사람들을 혼란시키듯이 대중 소설 역시 70년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포장을 지니고 나타난다. 최인호, 조선작들이 허황된 호스텔스의 사방이아기를 들고나와 옷 벗기, 도시적 감성으로 무장된 문제들을 무기로 대중을 사로잡았다면, 박범신, 이문열, 고원정들은 일단 당대 독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이야기거리로 삼는다. 박범신은 도시화와 농촌파괴, 빈부갈등 문제라든지 심지어 광주항쟁이나 노동운동까지도 소재로 삼고 이데올로기(모든 일에 대한 혐오, 특히 민중세력의 이념에 대한 공격)를 주된 매뉴로 선 보이고 있고, 고원정은 현대 정치의 현상이라는 인기몰이를 새로 개발해냈다. 한결같이 독

비의 문제를 전락시켰듯이, 전국민들에게 이전 광주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막장 계의 되었듯이,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대중 소설의 소재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온 현상을 발전이라고 보기 힘들어진다. 차라리 좀더 교묘하게 특자의 건전한 비판력을 호하는 잔편만 늘렸다고 볼 때도 좋을 것이다. 작가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정기로 독자를 사로잡지만, 일일이 따져 말할 겨를이 없는 만큼 몽땅그려 말하자면 대중소설들의 상업적 성공이란 대부분 너무 부당스럽지 않은 주제와 신기한 사건, 그리고 그것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문제나 구성, 즉 작가적 능력에 주로 기댄다고 있다. 예컨대 최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고원정의 정치가상소설 '최후의 계엄령'은 대연의 향방을 다루는 유모와 야욕을 엿보게 해준다. 유모와 갈등, 의문의 죽음, 암살, 진상을 파헤치려는 자와 파멸이라는 자, 군부엘리트와 정치엘리트의 힘겨루기...이 소설은 시종 긴박감으로 넘친다. 신문기사중에서 자신이 가장 인기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종의 본격적인 대형 정치가상인 소설이 대단한 호응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배권력의 주인공을 교묘하게 흑막을 다룰 뿐, 민중의 이해와 혐오를 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저 판권일 뿐이고 거저서의 정당한 몇몇 권력주변 인물들의 출세담과 권력쟁탈전을 의미할 뿐이다. 정치란 그들의 몫일 뿐이고, 주인공인 독자는 그저 구경꾼에 그친다.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나와 이웃들,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외자적 인식을 한층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무관심, 무기력증을 고취하는 정치소설, 이런 아이러니를 산출해내면서 그는 막대한 인세와 문명을 얻는다.

이런 대중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한편 민중진영의 문학은 매우 부진한 판고만은 보이고 있다. 상업적 유통구조에서 드러나는 수치지만 보더라도 비교하기 힘들만한 차이를 보이거나, 인기있는 대중소설들은 예외없이 텔레비전으로 극화되어 다시 시청자들을 향해 마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중들의 무비판적 반응을 탓하거나



### 상업적 유통구조속에서만 생명력 과시 도피처 역할...독자의 비판력 흐리게 해

상업소설의 대표적 인물이자 문인집단에서조차 최근 중고생 사이에 무심하게 읽힌다는 미국 '하인리히 소설' 번역을 들 수 있다. 무협소설들은 흔히 '비밀의 나'라는 살인극을 무도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하고 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시드니 셸던 등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하인리히 소설들의 해악에 대해서라면 얼마전 신문 지상에 널리 소개된 바 있으므로 길게 설명하지 않겠거니와 친박한 미국 상업소설들이 이 땅의 청소년들을 울리고 웃기는 상황은 커다란 반성을 요구한다. '뉴키즈'소통처럼 눈에 띄게 사회문제화되지는 않지만, 독자들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로만 만족하지 않고 소설을 읽는 까닭 중 하나가 '아무래도 책을 읽는 일이 보다 교양있는 일'이라는 식의 강박관념이 작용한다면, 지나치게 동속적이라는 정평이 나버린 작

자들이 일단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매뉴들이다. 소위 호스텔스 소설들이 당대 대다수 민중의 삶을 도의시켰다는 손쉬운 소재비판에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최소한 이런 비판에서는 면제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을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가에만 관심을 갖는 일은 소수주의적 관점에 불과하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또한 독자들에게 어떤 대중교육적인 영향력을 무었인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다. 분단이나 빈부갈등, 광주항쟁 등의 문제들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될 때 그들은 개별적인 문제들을 소재로 삼기 시작하지만 단지 흥미 위주로, 때 이른 거짓 화해로, 또는 양비론으로 다룬다. 광주를 다룸으로써 그 분절을 더 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색시선이다. 마치 광주정문화 이후 이 향쟁과 학살이 성급과 위령

성급이 절망할 필요는 없다. 문학인이 자신을 불러주는 독자를 찾는 일은 오래된 전통이지만 기실 문학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 불과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찌서 독자들은 이런 수준의 기대지평선만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그에 대처하는 일이 훨씬 의미있고 효과적이다. 그들이 상업주의문학이나 대중소설들에서 얻는 효용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찌서 방편이나 김하기 대신에 무협지나 박범신, 이문열, 고원정을 모르는가. 이들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고는 김명인의 '이문열' 한만수의 '박범신' 등('사상문화' 1990년 여름호, 대중작가연구시리즈)와 김중철의 '상업주의소설론'('한국문학의 현단계-2' 창비사)와 '대중문화와 민주적문화'('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지사)를 참조하시라-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대체로 그들은 현실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잠시나마 잊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나. 교동스런 현실 인식과 작성을 요구하는 문학보다는 마취적인 소설을 읽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음은 뒤집어 고단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작가들은 독자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수용조건에 걸맞는 작품을 쓰기 위해 더 헌충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벚꽃 축제 유감

문 명 대 (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전국 산악 어딜 가나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있다. 그야말로 천지가 꽃동산이다. 작년 이맘때는 지리산 일대의 불적(佛跡)들을 둘러서 남방의 화려한

에도 그리고 국회의사당길에도 벚꽃이 만발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얼마전 신문에 실린 국회의사당 앞에 일본 국화인 벚꽃이 웬말이라는 문제제기(신문 독자투고란)에 다시 반론하는 등의 예에서 보듯이 시비 또한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공방은 일찍부터 있어왔지만 이제 벚꽃이 만발하자 상당히 격화되어 있는 듯한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다.

꽃잔치를 만끽했는데 지난주에는 설악산을 일주하면서 산정의 눈과 산록의 꽃이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북방의 꽃잔치에 넋을 잃고 말았다. 동해의 절경 낙산사에도 예외없이 꽃들이 만발하여 의상스님의 옛고사를 생각나게 하였다. 마침 전 주지스님의 다비식(장례식)이 거행되어 아름다운 꽃산악이 화려한 꽃길을 완회케 누비는 광경은 슬픔을 넘어 기화초가 만발한 극락의 길인양 마냥 축제마음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활짝 피다못해 부영계 빛바랜듯한 벚꽃나무를 통과하는 꽃산악은 웬지 사뭇 질맛이 없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었다. 옛 시절에 벚꽃이라/ 역시 어색한 풍경이다. 언제부터 이런 벚꽃이 사찰의 조경에 등장했을까. 물론 일제시대 부터였겠지만 해방 후 모두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 벚꽃축제가 일본정착을 막고자 피나게 노력하던 추후공 이순신장군의 전승 기념도 인신 정에서 하필이면 시작되었을까. 아무래도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600여종의 결사항전의 격전장인 전주 군상도상에서 벚꽃가로수 축제를 대대적으로 여는 자는 무엇일까. 굳이 꽃축제에 시키는 제대한 근성을 나무랄지 모르나 작은 공산품 하나에도 덩 덩 거세를 하는 각박한 국제정세에서 나라의 사활이 달려있을 수도 있는 기쁜 장성을 중독시키는 땅의 꽃축제에 덩 덩 거세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뜻있는 학생들의 분발을 기대해 마지 않는 바이다.

### 수화물 배움시

손가락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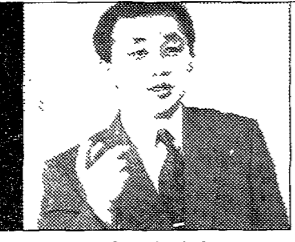
시각에 왼손바닥을 펴서 세우고 오른손은 ① ②지를 그림과 같이 만들어 ①지를 왼손바닥에 대고 ②지를 들린다.

약속 양손의 ⑤지를 철고 약속하는 동작을 한다.

늦어서 한손이 다른 손등을 타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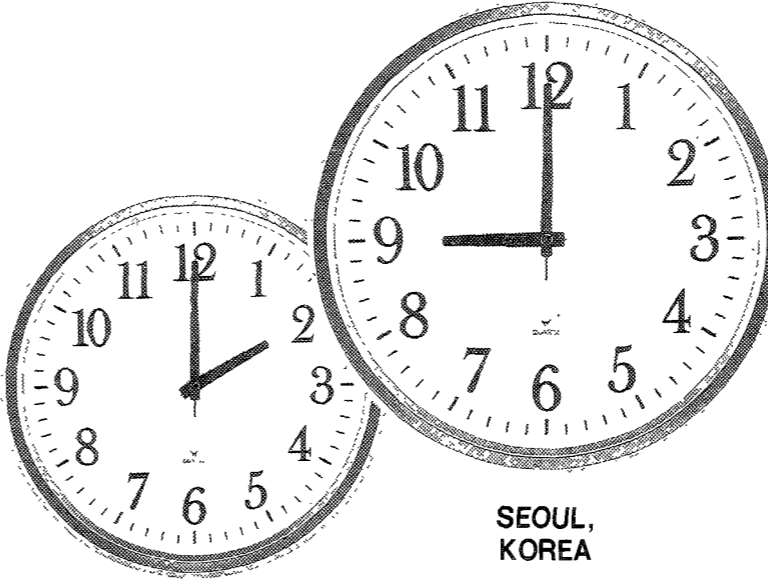
죄송합니다. 한손 ① ②지를 원을 만들어 이마에 대다가 퍼면서 다른 손등 위에 올려 놓는다.

한 만 수 (문학평론가·본교강사)



1989년 1월 입사 해외사업부 동유럽지역 담당 김철환

## 김철환氏의 "7시간 늦게 가는 시계"



SEOUL, KOREA BUDAPEST, HUNGARY

**헝가리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공항. 곧 이륙할 09:00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 내에서 지난 열흘간의 출장을 가만히 정리해봅니다. 다뉴브 강변을 뿔뿔이나 지나치면서 신선한 강바람 한번 맡겠어보지 못할 만큼 바쁘게 보낸 10일간의 헝가리 생활, 그리고 그이전의 많은 나날들 -

**처음 동유럽 수출팀에 배치받았을 때**  
1989년 1월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배치받은 「현대자동차 해외사업부 동유럽팀」. 당시엔 '아직 수교도 안된 공산권으로 과연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죠.

**마침내 소련으로 건너 수출!**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년 1월, 마침내 우리는 당시 공산권의 대국 소련에 건너 수출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뒤이어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이제 동유럽 전역에 걸쳐 우리의 자랑스런 차가 달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발 서울행 여객기에서**  
곧 김포공항에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환한 아침인데 손목시계는 새벽 2시가 조금 지나 있습니다. 아직 세 시계만 헝가리 시간이었군요. 시침을 다시 7시간 앞당겨 놓으며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해야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차, 세계의 차  
**HDD 現代自動車**

인간·지구에 꿈·행복을... ①



# 한국 영화사의 산 실험실

시 평

유현목 감독 작품론 '단힌 현실 열린 영화'는 한국영화의 거목인 유감독의 숭배 작업이 아니다. 본교에서 후진을 양성하였고 예술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중인 유감독의 명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 책에서의 주요한 의도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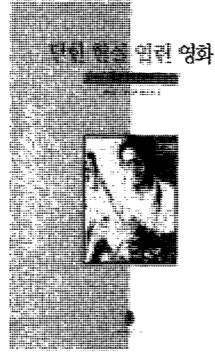
그는 한국 영화사의 한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한국 영화라는 테마를 갖고 많은 실험을 하였으며, 젊은 영화학자들이 그를 통해 실험실을 떠나들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실험 작업의 중간 평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성으로서의 율리가 아니라 실험으로서의 연구란 뜻이다.

그가 활동하던 5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도 한국 영화계는 완숙미는 고사하고 진지한 실험의식의 연구자 세조조차도 율리에게 수용될 수 없는 한계상황이다.

따라서 유감독의 영화연출의 역사는 한국 현대사의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부분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1948년 본교에 '영화예술연구회'를 창립하고 최초의 대학영화 '해방'을 만들면서, 최박한 예술품으로 한 예술가를 투사(?)의 이미지로 자연스레 만든다는 것을 실감한다. 1961년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단힌 현실 열린 영화

묘사한 '오발탄'은 5-16 군사정권에 의해 상영정지를 당한다. 1965년 '반공은 국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다.

'춘몽'은 외설혐의로 불구속, '순교자'에서 '신은 없다'라는 대사가 문제가 되어 교인들이 상영정지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예술 창작의 절곡 속에서 유현목 감독은 항상 회랑을 제시한다. '오발탄'에서 사회의 불안과 가난, 부도덕 속에서 어린이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기성세대가 회생 하듯이, 유감독은 자신을 불태운다.

이 책 '단힌 현실 열린 영화'는 바로 그러한 열린 영화, 즉, 열린 현실을 위해 실험 작업을 해온 그의 영화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유현목'을 전혀 모르는 '젊은 학도들'에 의해 그는 재발견된다. 1984년 광복 40년 베스트 10에서 '오발탄'이 1위로

## 단힌 현실

### 열린 영화

— 유현목 감독 작품론 —

전양준·장기철 편

(제3문학과사·8천5백원)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젊은 영화학자들은 단힌 현실 속에서 자연스레 한 목소리가 되었고, 그들은 열린 영화를 한국 영화 속에서 찾으려 했다. 그들은 '유현목'이라는 감독을 만났고, 영화 '오발탄'을 만났다.

이 책은 바로 유현목 감독 세대의 평가와 그후의 젊은 세대의 평가를 같이 싣고 있는 소중한 세대간의 만남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찾아 움직이는 한 예술가와 한국 현대사의 발음과 어두움을 대비할 수 있다. 열린 영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유현목 감독 자신이 지나는 인생동안 끊임없이 추구했으면서 동시에 자꾸 잃어버린 그 '자유'가 아닌가. 영화예술을 문화로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한다.

정재형 (연영과 전임강사·영화학)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문학과사〉

# 풍운

민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명종 소리에 눈을 뜬다. 물론 일제 카시 오다. 잠결에 화딱지나 내던져도 까딱없는 잠잠차시게다. 잠잠해지면 10분간격으로 귀청을 때리고 알 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내뱉는다. "오하이요우!"

여지없이 참패를 하고 미제 에이 스 침대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간다. 브랜드스 치약과 치솔로 입안을 청소하고 이타리 대리석 변기에 앉는다. 한참 아랫배에 힘을 쥐고 이마와 엉덩이에 땀방울만 맺힐뿐 감각 무소식이다. 오늘도 글렀다. 크리스찬디오 실크팬티에 크리넥 스텝라인 생리대를 부착하곤 주섬주섬 울린다. 필리핀가정부가 식

## 아트박스에서 산 일제필통을 끼고 펜탈 사 프를 흔든다. 노트위에 필기를 하려고 해도 영어 스펠링을 몰라 옆친구 안보이게 발음나 는대로 우리글로 적는다.

바위에 버터커피와 캘리포니아 오 렌지 쥬스를 올려놓는다. 몇몇 주 위 먹고는 이내 책보를 챙긴다. 1교시 수업이다. 91년형 포드에 몸 을 싣고 학교로 향한다. 책을 열고 담배곽만한 쏘니 CD플레이어를 꺼 낸다. 그리고 마이클잭슨의 컴팩트 디스크를 끼워 넣는다. 백열등이 거무튀튀한 우렁가의 허연 눈앞이 보이지만 개치지 않고 민자는 연신 상반신을 흔들며댄다. 차는 어느새 남산터널을 지나 신라호텔을 돌고 있다. 경문을 향해 질주하며 가파 른 언덕을 넘는다. 창밖으로 희씩 거러며 오는 학생들이 보인다. 민자는 매일 저들을 볼 때마다 경 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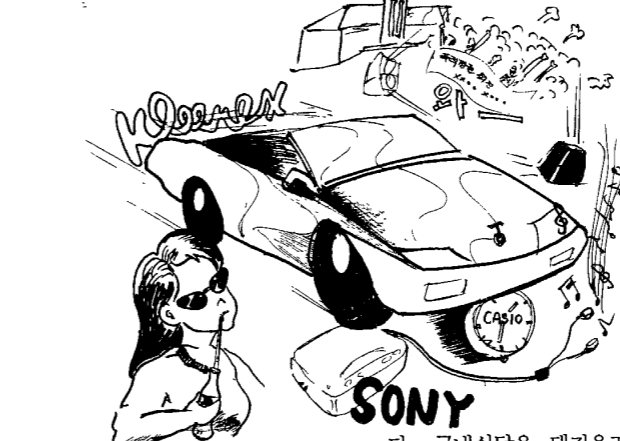
'정말 대단한 예술이야. 매일 저렇게 등산을 하던 힘들지 않을까? 어머! 저에 다리잡와! 완전히 곤 옥이야! 하긴 그렇지만도 하지. 선 배들 말대로 졸업할 때면 심유일이 근육질로 변한다는 말이 맞긴 맞나 본데.'

그러면서 민자는 순두부같은 자 신의 좋아할 들어본다. 출렁거려 민자는 자동판매기에서 불려커피를 뽑고는 강의실로 향한다. 커피

◇해연...월복작가 함세덕선생 작품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작.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충무소극장. 743-7778.

◇진시회 ◇김중섭 불화전(佛畵展)...본 교 출신 김중섭화백의 전시회. 5월6일부터 12일까지. 조영갤러리. 845-0441.

# 민자의 하루... 92년형 변비



다. 구내식당은 폐지우리 같다는 다. 강의를 벌써 시작이다. 교수의 강의 절반은 영이다. 민자는 아트 박스에서 산 일제 필통을 끼고 펜 탈 사프를 흔든다. 노트 위에 필기 를 하려고 해도 영어 스펠링을 몰 라 옆 친구 안보이게 발음나는대로 우리글로 적는다. 교수도 알고 적 는지 모르고 적는지 대충 휘갈겨 영어 단어 몇자를 적으면 민자는 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제로 대 강 비웃하게 받아그린다.

길고도 지루한 2시간짜리 강의가 끝나면 배가 출출하다. 민자는 7중 주 패거리들과 함께 학교 앞 패스 트 푸드점으로 쪼록 내려간다. '원철 도너츠', '웬디스 버그', '맥도 날드 햄버거', '튀니스 버그', '켄터 키 후라이드 치킨', '롯데리아', '피 자 핫'등등 선택의 폭이 넓다. 서 로 오늘은 뭘 먹을까하고 망설이는 라 10분은 허비한다. 원철은 너무 달아 살린다는 등, 웬디스는 고기 에 야채를 적게 넣는다는 등, 맥도 날드는 기름기가 너무 많다는 등, 튀니스는 소스가 시다는 등하면서, 그러다 결국 결정이 난 곳은 켄터 키다. 창가에 둘러 앉아 살코기를 케첩에 찍어 먹으면서 수다를 떠

였다. 단과대 깃발 아래 과학생물 깃발, 그리고 하우들이 개미떼처럼 몰려가고 몰려온다. 선배들이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이럴 때 민자는 제일 난감하다. 모른 척하기도 한 두번이지 싶어 오늘은 인심쓰는 마 음으로 주뽕뽕뽕 발길을 옮긴다. 다들 손을 들어 울리고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지만 민자는 아색한듯 맹송하니 앉아있다.

기점으로 대신출마후보자를 낙점 한다고 하는 것이나 6중이후 가 중된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 현상, 파탄적인 경제위기를 모 면하고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액제를 노린 총액임금제의 강력 한 추진등에서 우리는 현정권이 원승이 조원사보다도 더 못한 것

들을 하고있는 것을 알수 있다. 민자당경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 건말건 우리 민중들의 삶에는 그 령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밤에 그 나뭇잎이듯이 똑같은 통 지수단을 행사하게 뻔한 이치이 기 때문이다. 그것도 주체적이기 못한 미국의 배후조종을 등에 업 고 하는 모양새가 도부지 탐탁지 않다. ▲이제 4월도 가고 5월이 다가온다. 우리가 원승이 조원사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놈들 물 아내자! 물아내자! 물아내자!" 민자는 점점 불어나는 군중에 기 가 질란다. 한복판에 파묻혀 꼼작 도 못할 지경이다. 집회열기는 점 점 더해가고 민자도 어느새 심장이 쿵쿵거린다. 이제 후시 군중심리가 아닌가 하고 이성을 찾이본다. 민 자는 좋다 싶다. 어차피 휩쓸려 한 바탕 뒹굴을 발산하는 거라면 그게 목가페에서건, 디스코페에서건, 시 워대열에서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펜히 쪽팔리게 남을 눈치보 는니 자신도 열성분자처럼 보이는 게 나을 성 싶다. 그리고 대학교 때 데모 한번 해보는 것도 추억이 거니 하고 생각하니 맘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다행히 비폭력 시 워인 것 같다. 중문으로 개메쳐된 내리가 한참 동안 구호를 외치고 나니 목이 마르다. 민자는 지친 몸 을 이끌고 휴게실로 올라온다. 펜 지 자신도 뭔가 한 것 같은 기분으 로 뿌듯하다. 자동판매기에서 차가 운 콜라를 따 목구멍으로 속도 날 려고 마신다. 속이 탁 트이게는 아 아갈 것만 같다. 역시 콜라는 찬게 제맛이다.

오늘은 펜지 피곤하다. 펜장은 애가 걸려 와인 마시고 춤을 한번 추고 나니 몸이 녹초지근하다. 하 는 수 없이 먼저 나와 택시에 오른 다. 집에 오자마자 땅 속에 몸을 담근다. 밀크 샴파르 전신을 포 장한다. 코티크르르로 맛짓질한다.

또 그놈의 집회다. 지경지도 않나보다. 그 런데 선배들이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대학교 때 데모한번 해보는 것도 추억이거니... 구호를 외치고 나니 목이 마르다. 역시 콜 라는 찬게 제맛이야.

와코르 잠옷을 맨 몸에 걸친 채 허 쉼초코쥬스를 한잔 마시며 '연체인 드 멜로디'를 듣는다. 어느새 트 로 눈이 감겨 온다. 그러면서 민자 는 잠결에 필기를 중얼 거린다. "내일은 반드시 변을 봐야 하는 데..."

이 한 상 (국문과 91쪽)

## 잠깐 생각해봅시다 ⑧

### 동국수호장승을 아십니까?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동국학생 여러분! 그대들은 혹시 후분열에 늘름히 서있는 세계의 '장승'을 아시 는지요? 그 이를하여 '자주동국수호대장군' '민주동국수호여장 군' '통일동장군'이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장승의 주변은 지저분한 쓰레기들로 인해 마치 휴지통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옛부터 장승은 수호의 상징이었는데...통악에는 한게도 아닌 세계의 장승이 뿔 버티고 있으면서 각기 조국의 자주·민주·통 일을 염원한다고 생각할때 마음이 든든하기 그지 없습니다.

강경대일사 1주기가 바로 잊고계셨습니다.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두 어깨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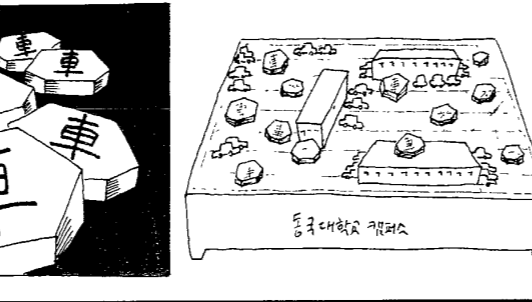
자, 오늘부터라도 후분열을 지날때 '세장군'들의 주변에 널려 있는 휴지를 우리손으로 주워봅시다.

진정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세장군들과 함께 염원하면 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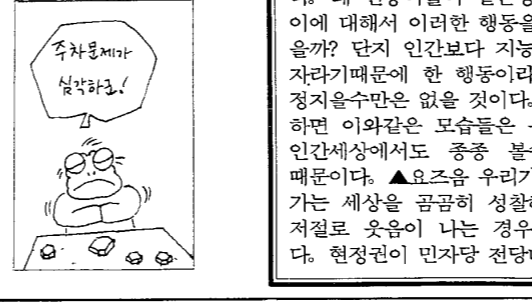
(문화부)



김태준 (15)



동국대학교 캠퍼스



주차분에게 생각하라고!

# CATS

그 이름만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뮤지컬의 명작 캐츠 - 혼자 보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 5월 25일까지 동승아트센터 대극장

매일 오후 4시/7시30분  
(5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월/화/수/목 4시 공연없음)  
■ 5월5일은 오후 4시, 7시30분 공연

□출연진: 윤복희, 현진설, 도기문, 김성동, 주원성, 김영철, 이기영, 권우익, 서병구, 신의규, 허준호, 전수경, 최정연 외 40명

□연출: 김지영, 안우/서병구, 변영/신성일, 분장/김기현, 편곡: 김지영, 미술/송관우, 조명/권명석, 무대감독/황호연, 조연출: 이강원

주최: 스포츠조선·관뮤지컬 컴퍼니  
주관: IMG 기획: 정프로젝트 협찬: 조선맥주  
공연문의: 741-3391 (동승아트센터), 746-4253, 741-0369 (예술기획 IMG)

• LG카드 조이티켓 799-6566 • 국민카드 캠퍼티켓 756-3153 • VISA카드 773-2071 • BC카드 729-4680 • 위너스카드 727-8200 • 이백스카드 398-0460 • 홈티켓 예매센터 775-2921 • 문화예술 정보센터 766-2654 • 종로서적 (종로2가) 733-2331 • 을지서적 (을지로입구) 757-8991 • 서울문고 (삼성동 무역센터) 553-3038 • 동화서적 (강남역지하) 552-6962 • 한가람서적 (강남터미널지하) 535-1600 • 세고비아 기타 (종로2가) 733-2331 • 바르코리코드 (대학로) 742-6440 • 신촌문고 333-2971 • 신세계백화점 310-1720 • 미도파백화점 778-3143 • 현대백화점 (압구정, 무역센터점) • 갤러리이백화점 515-3131 • 진도도매센터 521-6745

직장 및 학생단체를 위한 특별혜택  
20명 이상 단체관람을 원하는 학생 및 직장분들에게 입장료 3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